

보라보!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우리

마이 라이프



DSME 가족지

vol. 248 | 2019 하반기

- 04 가족편지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 06 그림으로 보는 뉴스 : LNG 관련 제품들
- 08 사진으로 보는 뉴스 : DSME 소개
- 10 부서탐방 : 탑재
- 12 우리동네 지도 : 장승포



나 이틀 동안 출장 가면 혼자 애들 잘 챙길 수 있겠어?



당연하지, 걱정 말고 얼른 출발해



카톡!



어머!

“ 행복을 위하여 ! ”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일을 처리하거나 가족을 챙기거나 하면서 빠듯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이 행복하다면 참 복 받은 인생이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한 번의 순간 또한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합니다.

“잘했다”는 한마디를 듣거나, 퇴근 후 가족이 반겨주거나, 씹씹하게 밥 먹는 아이를 본 순간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느낍니다.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우리 “참 잘했어요. 사랑해요.”

— 당신의 동료이자 아내이며 수아, 민아, 형주 엄마 보경 드림



* 손보경(특수선(LS부), 채민영(조립1부) 사우 가족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아오신 DSME 모든 사우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당신께

세 아이와 함께 잘 해낼 수 있을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잘 채울 수 있을까? 약해진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았던 당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해내고 있지요.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당신과 함께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늘 함께 한다면 모든 게 다 잘될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감사해요. 사랑해요.

-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민영

사보를 가족에게 전해준 사우 30명 (협력사 포함)에게 10만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 ▶ 참여 기간 |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 ▶ 참여 방법
가족과 가족지 보는 사진을 카톡이나 문자로 송부
*연락처 '010-9477-9544' 로 친구 추가
*DSME가족지는 회사 '홈페이지(www.dsme.co.kr) → 홍보센터 → 웹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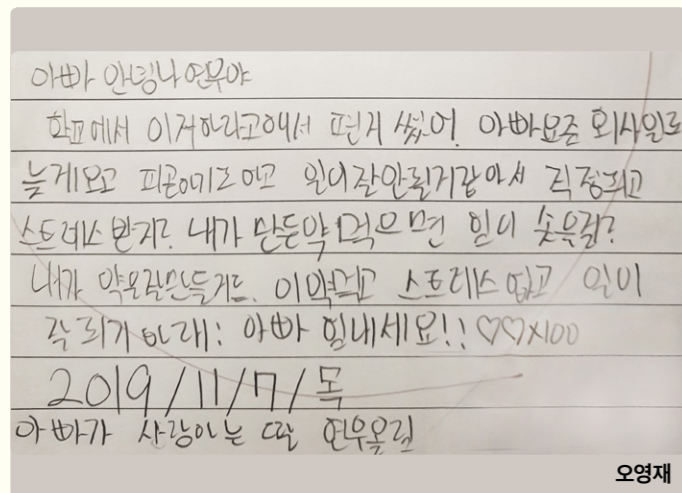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사우들에게 물었습니다. '2019년 당신이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머니, 당신 존재만으로도... 어머니, 당신의 위대하고 소중한 삶과 함께 한 순간 순간이 제겐 제일 큰 행복입니다. 당신의 세월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가 준 힘내약

마음약국 약사가 된 딸에게서 '힘내약(편지)'을 받은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5년차 주말 가족과 친구

결혼 후 5년 동안 주말 부부, 주말 아빠로 살다가 드디어 가족 모두 거제에서 함께 한 순간 행복했어요.



여름날 밤,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별을 마주했을 때



자전거 타고 동해안, 인천~부산을 국토 종주한 순간



거제도 해안 328km를 바다수영으로 헤엄쳤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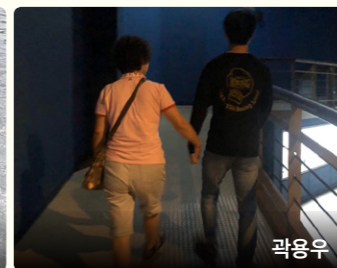
주52시간 근무로 새로운 취미를 즐기던 시간



버킷 리스트인 LA 다저스 홈경기를 직접 관람했을 때



생애 첫 철인3종 경기를 완주한 순간



홀로 두 자녀를 키우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와 함께 한 모든 시간



세 아이와 함께 하는 매 순간



결혼 5년만에 찾아 온 임신 소식. 수진아~ 앞으로 더 잘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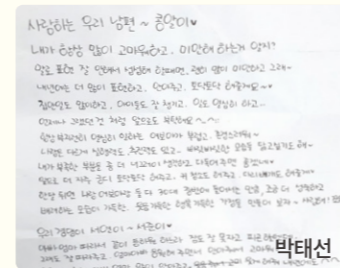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순간



에너지 넘치는 아들 삼총사와의 부루마블, 딱지치기 시간



날 지켜주겠다는 그(5살 아들)의 다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깜짝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먼저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아들과 수영 만들던 미역 촉감 놀이 시간



배를 인도하고 아이들과 약속한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어머니 생신 날 가족과 함께 한 시간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제도에 살고 있어서



아들과 경남교육가족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쁘게 잘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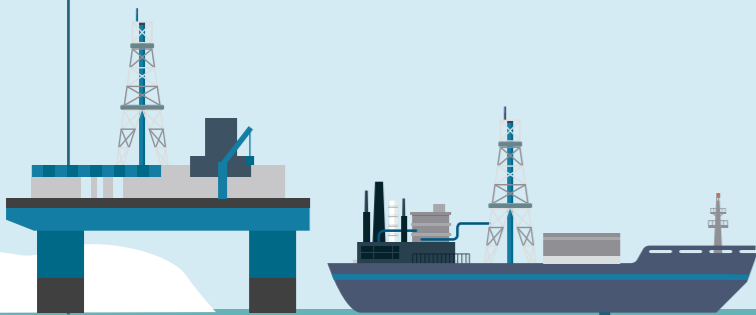
유치원생 아들과의 가을 산행

채굴~운송 책임지는 DSME 제품들

천연가스가 우리 집에도 오기까지

회사는 채굴부터 생산, 운송까지 천연가스 모든 분야에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가스분야 강자, DSME 기술을 알아보까요?

리그와 드릴십이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한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뚫습니다.
수면으로부터 에베레스트 높이(8,848m)보다
긴 1만 2,00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까지 리그 26척, 드릴십 29척, 잭업리그
3척을 건조했습니다. (수주계약기준)



LNG-FPSO(해상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저장·하역하는 설비)가 바통을 이어
받습니다. 이 설비는 가스정에서 원료를 뽑아
올려 불순물, 물, 기름을 분리해 순수한 가스만
걸러냅니다. 가스는 영하 163°C로 액화시켜
설비에 저장합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LNG)를
LNG선에 옮겨 실기도 합니다.
2016년, 회사는 세계 최초로 LNG-FPSO를
완성해 고객에게 안겨줬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LNG선에 실려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회사 LNG선은 우리나라 하루
천연가스 소비량과 맞먹는 양을 한번에
실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LNG선은 육상 파이프로 운송하던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로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해 북극 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LNG선 183척을 건조했습니다
(수주계약기준).
대형 LNG선 분야에서 20년 연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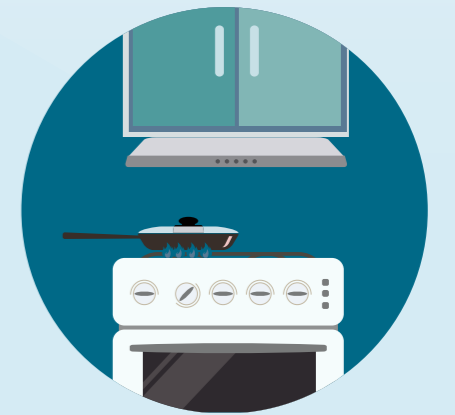
3 액화 천연가스 운송

천연가스 수송
17만 4천 m³
= 우리나라 하루 천연가스 소비량



회사는 운송한 액화 천연가스를 바다 위에서
가정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재기화하는 선박도
건조합니다. 바로 FSRU(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입니다.
LNG-RV(가스 재기화 선박)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암흑이 된 육지에 가스를 바로 공급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회사는 FSRU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4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설비



1 심해 가스정 채굴

에베레스트 높이
8,848 m

수심 **1만 2,000 m**

2 망망대해에서 액화 천연가스 제조



-163°C
액화

DSME만의 특별한 기술

• 재액화시스템(PRS, FRS)

회사는 LNG선 운항 시 기화돼 버려지는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회수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연간 약 10억 원의 운항비뿐 아니라 배기가스를 줄여줍니다.

DSME를 소개합니다

오늘 조선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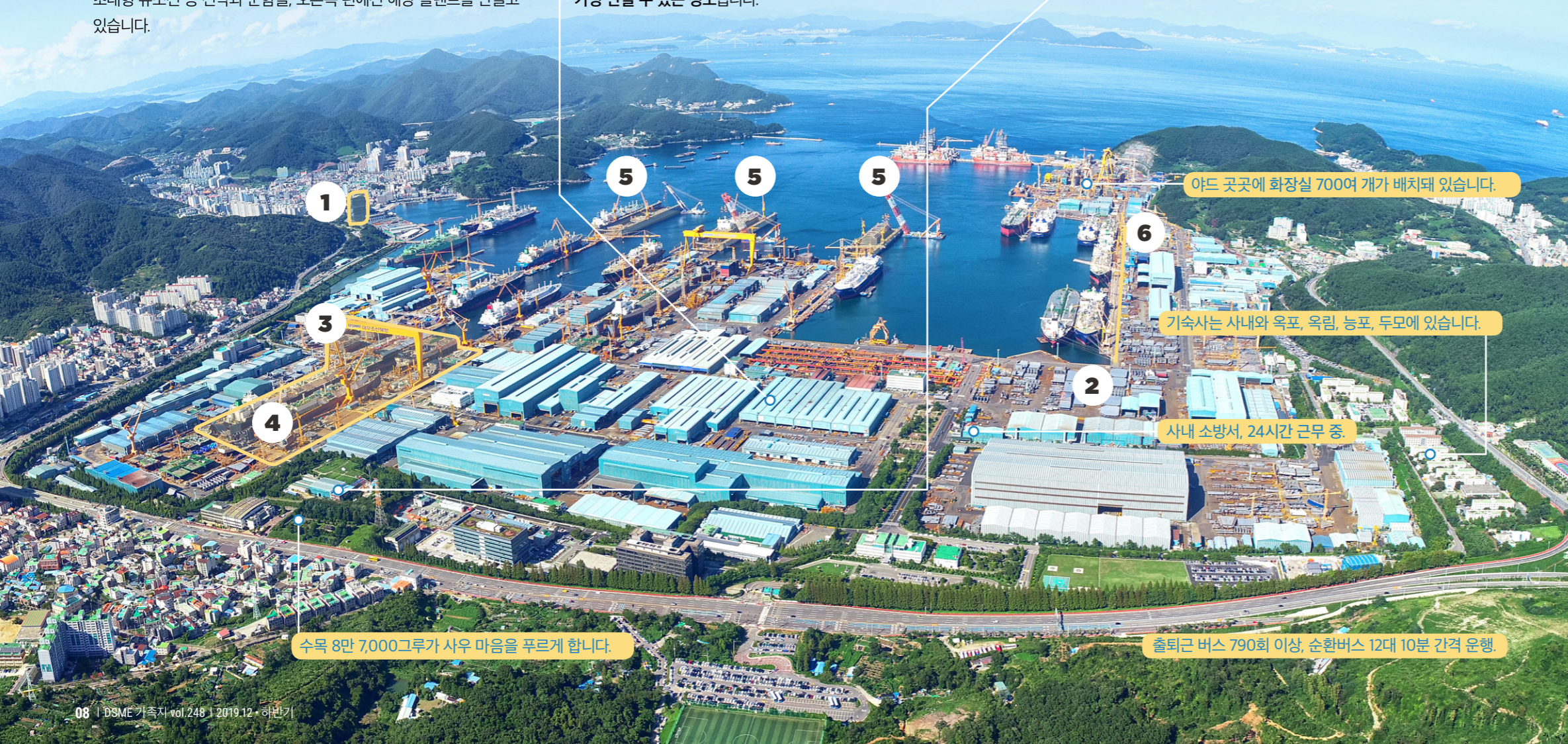
- 사우 2만 8,000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포함)
- 야드 면적은 4.62km²(약 140만평). 왼쪽 편에선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등 선박과 군함을, 오른쪽 편에선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절단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면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1년에 80만톤의 철판을 사용하는데('19년 계획 기준) 이는 경차(900kg)를 100만대 가량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선박 기술과 용접 로봇 등 스마트한 야드를 만드는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3

4

5

5

5

6

2

야드 곳곳에 화장실 700여 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기숙사는 사내와 옥포, 옥림, 능포, 두모에 있습니다.

사내 소방서, 24시간 근무 중

수목 8만 7,000그루가 사우 마을을 푸르게 합니다.

출퇴근 버스 790회 이상, 순환버스 12대 10분 간격 운행



1 설계원들이 오션플라자와 지원센터에서 선주,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도면을 그립니다



2 트랜스포터가 무거운 블록을 실어 나릅니다. 1,000톤 트랜스포터 바퀴 수는 128개입니다.



3 900톤 콜리엇 크레인이 야드에 4대가 있습니다. 야드 크레인인 모두 740여 대로 무거운 장비, 철판, 블록을 들어 올립니다.

4 1도크에서 배 4척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도크 길이는 530m, 폭 131m, 깊이 14m입니다.



5 플로팅 도크는 모두 3기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으며 배를 다 지으면 도크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가라앉혀 배를 바다로 내보냅니다.



6 안벽, 배 겉 모양이 완성되면 이곳에 배를 정박해 놓고 배관, 전선, 장비 설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총 안벽 길이는 8,943m로 자전거 3,500대를 일렬로 주차할 정도입니다.



회사가 올 해 동안 완성하는 배는 모두 50척입니다. 1973년 창사 이래 완성한 선박은 1,350여척입니다. (12월 20일 인도기준)



사내 식당 31곳에서 사우들이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쌀 65가마(5톤), 돼지(수육용) 99마리 등이 쓰입니다.

배의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탑재부**



“아빠가 늦게 퇴근하면 ‘왜 이리, 늦어~’라고 핀잔 주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시은, 시윤이에게 ‘진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DSME 가족들에게 우리 부서 일을 소개하면서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현우 사우 선박탑재 1부



01 생산의 중심 : 조립→탑재

탑재 부서는 레고처럼 블록을 쌓아 배 모양을 완성해. 철판을 잘라 블록을 만들면(조립), 그 블록을 쌓고 용접으로 이어 합체하는 거지. 배 모양을 완성하면서 페인트 칠과 배관, 전선, 장비 설치를 마치면 바다 위에서 시험 운항을 한다. 그래서 탑재는 생산 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지.



02 500개 블록 순서대로 쌓아

야드 안에는 블록이 500개 정도 있어. 탑재는 이 걸 언제 어디서 쌓아 올릴지 계획을 세워. 큰 블록 크기는 길이 20m, 폭 60m, 높이 30m 정도야. 아빠 키의 17배가 넘어. 무게도 20~2,700톤 정도 돼. 2,700톤이면 아이(20kg 기준) 13만 5,000명 무게와 맞먹지. 블록을 쌓기 위해 힘센 골리앗 크레인(900톤)과 해상 크레인(3,600톤) 등을 사용해.



03 오차 없게 맞추고 용접하고

블록은 어떻게 합칠까? 우선, 블록끼리 맞붙는 부분이 잘 맞을지 측정해(정도 체크). 삐뚤게 붙으면 안되거든. 안 맞는 부분은 자르기도 해(절단). 여기까지의 작업을 ‘심출’이라 해. 그리고 블록 이음새를 중간 중간 녹여 붙인(취부) 후 그 이음새 전체를 녹여 붙여(용접) 단단하게 합체시켜.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땐 그 열기가 200도가 넘어.



04 배 모양을 완성하면 바다로~

P.E(선행탑재: Pre-Erection)장에서 작은 블록을 합치고, 도크에서 큰 블록을 합쳐 배 모양을 완성해. 도크는 육상에 2개, 해상에 3개 있어. 도크는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겼는데, 세계 최대 규모(7만여㎡)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 도크에서 배 모양이 완성되면 도크에 바닷물을 채운 후 수문을 열어 배(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등)를 바다로 내보내(진수). 바다에서 기름을 캐내는 해양 플랜트는 도크가 아닌 해비존을 이용해. 배 모양이 완성되면 일자 모양의 철길(스키드 빔)을 따라 배를 바다로 밀어 내보내지.



05 올해 37척 진수

보통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200여 개 블록이 필요해. 올해 진수한 선박이 모두 37척(12월 20일 기준)인데, 탑재 부서가 한 해 동안 쌓아 올린 블록은 상당하지. 블록 하나가 일반 건물의 3~5층 높이니 어마어마한 규모야. 게다가 갈수록 커지는 블록을 안전하면서도 좀 더 빨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탑재 부서는 배 블록 뿐 아니라 회사 명성도 쌓고 있는 거란다. 정말 멋지지 않니?



장승포 지도



장승포

우리 가족 여가시간에 동네 한바퀴 걸어도 보고
숨은그림 찾기도 해보세요.

이번호 숨은그림 정답을 촬영해 보내주사우 20명은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010-9477-9544 카톡 또는 문자로
숨은그림 정답 사진과 사우 성명, 소속, 연락처를 함께 송부
숨은그림 | 우산, 연필, 지출, 반지, 캔디

- ★ 표시는 사우들이 추천한 맛집입니다.
- 1 | 광양숯불닭갈비(숯불에 구운 닭갈비)
- 2 | 마지막회(마지막까지 맛있는 회)
- 3 | 활천돼지국밥
- 4 | 해양식당(벨릭메운탕)
- 5 | 창이촌(창국장, 조개탕)
- 6 | 베밀길국수(베밀길국수 톳김밥, 메운어묵김밥)
- 7 | 캉캉계장정식(한지인 추천 계장집)
- 8 | 실내포차(홍아, 딸치회)
- 9 | 풍덩(수제순대국밥)



- 01 | **매일원**
80년 개교한 지역정에 교육기관.
에번워우스는 맛있는 커피와 멋진 뷰,
아이들이 키운 화체를 감상할 수 있지.
- 02 | **거제문화예술회관**
와, 손흥에 향해야하는 '꽃단배'모양이야
- 03 |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 04 | **동백섬지심도터미널**
거울처럼 동백섬으로 유명한
지심도행 배 타는 곳
15분만에 건너고!
- 05 | **장승포유람선터미널**
2시간 50분 코스로 외도, 해금강, 지심도
해안선을 도는 유람선을 탈 수 있어
- 06 | **장승포항**
65년 6월 29일 개항지
(외국과 무역하도록 개방한 항구)로 지정
연말엔 불꽃축제도 해
(12월 31일 오후 1시~8시)
- 07 |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장승포에 있는 작은 '저녁취' 시장.
1층에서 해산물을 사서 2층에서 먹지
- 08 | **총명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592호 귀중서
'예림미타도량현범'을 보관하고있어
- 09 | **장승포 해안도로**
바다가 보이는 선재로.
- 10 | **몽돌개**
해돋이기 유명한
- 11 | **(구)거제여객터미널**
거제대교가 생기기 전, 부산으로 활발하게
사람을 실어나르던 터미널
지금은 비어있어, 곧 활력을 되찾길~
- 12 | **하인들대 / 벨칸들대**
범에 보면 UFO같이
- 13 | **윤계공원**
거제섬&섬길 코스
- 14 | **가시내꾸미길**
거제다-윤계체육공원까지 해안을 잇는
둘레길 1시간 30분 완만한 코스
- 15 | **거제대학교**
거제대내 유일한 대학
아니니 중국전 짜장면, 풍뎉기삼바 곱